

일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개정 동향

2026. 4.

기획정책본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

□ 개요

- 일본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표시를 요하는 ‘특정 원재료’와 권장 표시가 가능한 ‘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’으로 구분하여 표시 관리
 - (특정 원재료) 증상 발생 건수 및 중증도를 고려하여 표시 필요성이 높은 품목으로, 이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표시를 의무화
 - * 일본 소비자청 「식품표시기준¹⁾」 별표 제14에 규정
 - **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내각부령으로 행정 입법
 - (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)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중 증상 발생 건수와 중증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식품으로, 알레르기 표시를 권장
 - * 일본 소비자청이 발표한 통지 형태의 행정지침인 「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」²⁾에 규정
- 최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8종→9종으로 확대하고, 권장표시 대상도 1종 확대
- 일본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,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대일 수출 시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(개정사항) 일본 소비자청은 「식품표시기준」 및 「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」의 개정(26. 4. 1.)을 통해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
 - (캐슈너트) ‘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(권장)’에서 ‘특정 원재료(의무)’로 상향
 - (피스타치오) ‘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’에 신규 추가
- (개정배경) 동 개정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반영
 - (캐슈너트) 2024년도 전국 실태조사³⁾ 결과, 캐슈너트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발생 건수* 및 견과류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
 - * ('12) 18건 → ('15) 50건 → ('18) 82건 → ('21) 174건 → ('24) 279건
 - (피스타치오) 다수의 전국 실태조사⁴⁾에서 알레르기 발생을 반복적으로 확인
 - * ('15) 2건 → ('18) 5건 → ('21) 22건 → ('24) 50건

1) 일본 ‘식품표시기준’ (https://www.caa.go.jp/policies/policy/food_labeling/food_labeling_act/assets/food_labeling_cms201_260401_05.pdf)

2) 일본 ‘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’ (https://www.caa.go.jp/policies/policy/food_labeling/food_labeling_act/assets/food_labeling_cms201_260401_12.pdf)

3) 일본 소비자청, 2024년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식품표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보고서 (https://www.caa.go.jp/policies/policy/food_labeling/food_sanitation/allergy/assets/food_labeling_cms204_241031_1.pdf)

4) 일본 소비자청,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(https://www.caa.go.jp/policies/policy/food_labeling/food_sanitation/allergy/)

- (개정 전후) 금번 개정으로 일본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아래와 같이 조정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특정 원재료	(8종) 새우, 게, 호두, 밀, 메밀, 난류, 유(乳), 땅콩	(9종) 새우, 캐슈너트 , 게, 호두, 밀, 메밀, 난류, 유(乳), 땅콩
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	(20종) 아몬드, 전복, 오징어, 연어알, 오렌지, 캐슈너트 , 키위, 쇠고기, 참깨, 연어, 고등어, 대두, 닭고기, 바나나, 돼지고기, 마카다미아, 복숭아, 참마, 사과, 젤라틴	(20종) 아몬드, 전복, 오징어, 연어알, 오렌지, 키위, 쇠고기, 참깨, 연어, 고등어, 대두, 닭고기, 바나나, 피스타치오 , 돼지고기, 마카다미아, 복숭아, 참마, 사과, 젤라틴

- (시행일)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(캐슈너트) 관련 개정 사항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1일로 하며, 유예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적용

* 권장표시 개정 사항은 시행일 미적용

□ 시사점

- 일본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‘특정 원재료(의무표시)’와 ‘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(권장표시)’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, 수출 기업은 해당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른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 필요
- 캐슈너트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에 따라 유예기간(2028.3.31.) 내 포장재 소진 및 신규 규제 이행 준비 철저
- 권장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법적 표시 의무는 없으나,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표시가 권장되고 있으며, 제품 특성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 표시 여부 검토 필요
- 한편 일본에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므로 의무표시 및 권장표시 대상 물질 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·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.

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·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.

식품안전정보원 기획정책본부
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(☎ 02-744-8156)
